

<성찰질문1번>하느님께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당신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자연을 묵상하며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이해는 어떻게 깊어졌나요?

위대한 자연의 책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1.자연이나 계절에 대해 무심하게 넘기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어릴때와 다르게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지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우리도 자연에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4계절 처럼 인생도 흘러가는 것 같다. 희노애락이 자연에 다 묻혀 있다.

2.자연으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것이 다 어우러져 있다. 내 자신이 뭔가 해야 하고 책임감에 짓눌려서 사는 일상의 삶들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것을 통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

3.하느님이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봄에 피는 꽃 향기 여름의 매미소리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모든 계절의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르게 생김. 모든것에서 주님의 존재를 깨달음.

자연을 음미 하면서 자연의 조화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감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4.예쁘게 피어 있는 꽃 갑자기 내리는 눈속에서 하느님을 아무이유 없이 느낄때가 있다. 감사하다.

5.마음이 안좋을때. 자연속에서 걸다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때가 있음 눈물도 나고 자연이 주는 치유가 있음.

<성찰질문 2번>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듣고 있는 울부짖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울부짖음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고통을 초래하는 시스템이나 문화(예: "쓰고 버리는 문화")에 젖어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행동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세상의 험악한 뉴스에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다. 마음의 울림이 이제는 뉴스로만 느껴지고 남의 이야기로 느껴진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다. 한번 사면 끝까지 쓰고 버려야 하겠다. CLC를 통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내 자신이 자극을 받아서 좋은 것 같다. 물건을 재사용해 나가는 방안들. 성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생각해 봄

2.쓰고 버리는 문화를 생각해 봄. 아이들 키우다 보니 쓰레기가 많아짐. 일회용을 쓰는 일시적 편리함을 쓰는데 있어서 쉽게 쓰고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실천은 무엇인가. 나의 작은 아낌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연의 일부인데 쉽게 생각해서 안되겠다.

3.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태평양 바다에 가면 온갖 플라스틱이 쌓여 섬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함.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 철학과 문화이다. 변화에 대한 행동은 무엇인가.

4.옷 쓰레기를 보면서 옷을 나는 아무생각 없이 사오고 있었구나 나의 생각없음에 어느곳에서는 자연과 사람들이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고통 받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5.주부의 역할을 하다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저버릴 수가 없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했던 내 욕심들이 생각이 났음.

<3번째 성찰 하기>

무엇이 당신을 희망으로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이 들은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보는 희망 어린 실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실천한 대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1.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비 문화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실천. 하느님과 동행하고 하느님에게 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속에서 행동하면 될 것이다.

2.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천하기란 외로움 싸움 같다 주위에서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편리함의 추구.

3.잘못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한 회개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실천이 있어야

4.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나

5.생태적인 회심, 우리의 삶의 태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시는 교황님의 메세지 나혼자는 외롭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공동체의 희망이다.

<4번성찰>

일년내내 호라이즌에 대한 개념과 메시지를 계속 간직하기를.

의장님의 추천영화 The Letter

2025 년 동안 여러분과/또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게 생태적 회심(ecological conversion)에 더 깊게 다다를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지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위해 2025 년 여러분의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공감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의견들이 있을까요?

- 1.테이크 아웃 하는 것 안쓰는 것. 전기와 개스를 줄이는 방법.
여러가지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등
- 2.비닐류의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한 반성. 줄이는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담는 방법으로.
전자렌지 커버를 덮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
- 3.산불 나거나 지진 났을때 2차헌금등으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루트를 잘알기를
여러가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겠구나
- 4.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하자
- 5.아마존 사용을 자제하자. 종이상자의 줄임을 시작하자.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자.

<모임성찰>

- 1.하느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보고 자연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 같았다.
- 2.작지만 실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 카타리나 자매님의 이야기를 전하자에 와닿음

3.자연의 우리와 하느님과 소통 고리인데 우리가 훼손하면 안되겠다

4.더러라는 영화를 보면서 각각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돋보였다.

5.자각하는 삶. 자극을 받고 자각하게 되는 것. 우리의 소비형태를 자각한다는 말.
혼자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하면 희망이 있다.

<체크아웃>

1.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하느님을 통해 배우고 자각하고 나갑니다.

2.풀뿌리 운동.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지만 CLC에 등록이라도 되었어서. 작은 힘이
나마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3.환경문제와 하느님과 연결하게 되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많이 들 얘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남일이라 생각 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여서
좋았다.

5.삶속에서 파견되어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